

최적의 문화적 균형 위한 진보?

표지 이야기 | 글과 '글 아닌 것'의 이중주, 비주얼 출판

나와 나 이외의 것의 멀고 가까움. 그것은 둘 사이의 '관계'에 따라 가늠된다. 지나간 시절과 다가올 시간의 간극 역시 삶의 인과에 따라 그 너비가 제각기 느껴지기 마련이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마름질하며, 가슴으로 읽어내는 술한 존재들의 물성物性, 그것 역시 눈과 머리와 가슴의 형용이 어떠한가에 천변만화千變萬化의 함의가 오간다. •• 책을 짓고, 글을 쓰는 일은 내면의 계시를 뛰어넘는, 타자와의 관계 맺음이다. 매체적 임무 수행의 방식에 있어 역시 쌍방향적 가변의 것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텍스트의 모양새가 어떠한든, 화자의 통로가 어떤 것이든 상관할 게 못 된다. 자신과 타자를 아우른 '보고 읽는 이'에게 변질되지 않은 메시지의 근본을 알리기만 하면 된다. •• 그래선지 형형색색의 출판문화를 우리는 목도한다. 사물과 현상의 매김새를 전하고, 뜻을 알리는 데 헌신하는 온갖 모양의 메신저들을 접한다. 활자 아닌 그 어떤 것에서부터, 문자와 그림과 사진의 어울림이 빚어내는 갖가지 형이상·하학적 결과물에 우린 눈을 다시 뜬다. 지금 글과 '글 아닌 것'의 이중주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까닭이다. •• 혹자는 '이미지의 과잉'을 근심한다. 절제되지 않은 사진과 그림과 타이포그래피와 만화의 캐코퍼니가 행여 텍스트의 본질을 훼손할까 저어한다. 그럼에도 이는 거역할 수 없는 '진보'다. 최적의 문화적 균형에 다가가기 위한 몸짓이자, 각별한 창조다. 그래서 신년 벽두〈출판저널〉은 다시금 '글'을 생각하며, '글 아닌 것'의 의미에 밑줄을 긋는다.

화려하고 적극적인 무늬의 책, 전자문화의 번성에서 당당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

글과 이미지의 이중주를 주목하다

글 | 이남호

책이란 무엇인가? 책이라고 하면 보통 글자가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는 종이들의 묶음을 생각하게 된다. 크기와 모양과 두께가 다양하긴 하지만, 책과 책 아닌 것의 구별은 비교적 쉬운 편이다. 책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공책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 것도 씌어지지 않은 종이 묶음만의 책을 공책, 즉 비어 있는 책이라고 한다. 그 공책에 우리는 주로 문자를 보관해둔다. 아마도 종이와 문자는 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일 것이다. 그러나 종이와 문자가 책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는 없다. 종이 대신 나무나 비닐에 글자를 인쇄하여 책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문자가 거의 없는 책들은 예부터 흔한 것이었다. 물론 문자는 책의 가장 절친한 동반자였다. 책은 무엇보다 문자를 모아두는 도구였다. 그러나 책을 문자의 그릇 혹은 푸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책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

오래 전, 문자는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다. 문자를 쓰고 읽을 줄 아는 능력은 대단한 것이어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대접을 받았다. 그들은 신의 말씀을 세상에 알리는 전령의 역할도 했다. 신분은 낮은 사람들은 문자를 배울 수도 없었지만, 배우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불경스런 것이었다. 사람들은 문자와 책을 통해서 신의 뜻을 마음의 바깥에도 새겨두고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문자와 책은 귀하고 신성하여 보통 사람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이였다. 책은 오랫동안 정성스레 씌어졌고 또 사치스럽게 제작되었다. 책은, 인간이 만든 많은 것들 가운데서 제왕의 위의를 갖춘 것 가운데 하나였다.

터키 작가 오르한 파묵이 쓴 탁월한 소설 《내 이름은 빨강》은 16세기 오스만제국의 세밀화가들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그 소설에서 늙은 화가는 술탄의 특별 허가를 얻어 보물창고에 들어간다. 거기서 화가는 철로

만든 께짝에 보관되어 있는 오래되고 귀한 그림책들을 경외감과 놀라움 속에서 본다. 그 책들은 손잡이가 다 이어문드로 된 명검 같은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이며, 세계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그 책들은 왕이나 왕의 특별허가를 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책은 보물 중의 보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술탄의 보물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책들은 대개 그림책이었다. 책이 문자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그림을 담는 그릇인 경우도 많았다. 많은 책들에서 문자와 그림은 서로 도와 책의 의미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책으로는 《삼강행실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다가 '문자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책'이란 개념이 보편화된 것은 문자와 책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가 확대되고, 인쇄술이 발달하고, 문자문화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책은 희귀한 보물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용품이 되어갔다.

책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인쇄술의 발달이었다. 인쇄술의 발달은 책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책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접하고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책의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즉 책의 대중화가 문자의 대중화를 촉진했고, 또 문자의 대중화가 책의 대중화를 촉진했던 것이다. 문자와 책의 대중화는 나아가 지식의 대중화로 이어지고 이것은 근대 문명의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맥루한이나 윌트 옹 같은 학자들은 서구의 근대문명이 곧 문자문명이라고 주장했다. 인쇄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문자문화의 발전과 확산이 근대문명을 낳았다는 것이다. 맥루한의 《구텐베르크 갤럭시》는 이러한 생각을 폭넓게 펼친 책이다. 산업혁명이나 근대

이제 책은 검고 단조롭고 판에 박힌
문자 무늬의 나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 대신

보다 화려하고 적극적인 무늬의 책,
무늬 자체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뽐내는 책이 되고자 한다.

한 것이 되었다. 이제 세상의 소통은 문자라는 매체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전자라는 매체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진다.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 핸드폰 등은 모두 전자문화들이다. 전통적으로 문자문화였던 책과 신문도 전자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20년 전의 신문과 오늘의 신문을 비교해보면, 신문지면에서 얼마나 이미지의 세력이 강해졌는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만화가 인기를 끄는 것도 그것이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는 전자와 사돈지간이다.

문자의 영광은 급격하게 퇴색하고 있다. 문자만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책도 점점 소외당하고 있다. 이제 책들은 다시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 되고자 한다. 문자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이미지를 담고 그래픽성을 높여서 읽는 책에서 보는 책으로 변화하려 한다. 16세기 오스만제국의 보물창고에 있던 세밀화가들이 그린 책들처럼 그림의 아름다움이 책에서 점차 소중한 것이 된다. 책을 흰 바탕에 무늬가 그려진 종이들의 묶음이라고 할 때, 이제 책은 검고 단조롭고 판에 박힌 문자 무늬의 나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 대신 보다 화려하고 적극적인 무늬의 책, 무늬 자체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뽐내는 책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은 단지 책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문자문화가 쇠퇴하고 전자문화가 번성하는 세상에서 책이堂堂하게 존재할 수 있는 필연적 선택일 것이다. **이남호**

적 사회제도와 사상 등 모든 근대문명의 바탕에는 문자문화가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19세기 서구문학이 놀라운 세계를 펼쳐 보여줄 수 있었던 까닭도 그 시기가 문자문화의 절정기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문자적 능력을 높이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었고, 그래서 책을 통한 글 읽기는 절대적으로 칭송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책과 독서에 대한 맹목적 존경심은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무렵부터 문자문화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 전자문화가 문자문화를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자문화의 발달에 따라 사람들의 문자적 감각은 쇠퇴하고 전자적 감각은 날로 예민해졌다. 문자문화의 총아였던 책 대신 영상문화가 시대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전자문화에 익숙해진 젊은이들에게 문자는 불편한 것이요, 영상이나 이미지는 편안

이 글을 쓴 **이남호**는 고려대학교 국문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80년 평론으로 등단,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평론집으로 《한심한 영혼아》 《문학의 위족》 《독서를 위한 문학》 《보르헤스 만나러 가는 길》 《문자제국 쇠망약사》 등이 있으며, 엮은 책으로 《오늘의 한국소설》 《옛 우물에서의 은어낚시》 등이 있다. 현대문학상, 소천비평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